소년단

1955.8

새학년도 첫날 김 창 규 촬영
앞표지… 8•15 명절 날 림 영 환 그림

위대한 쓰딸린 대원수의
령도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는 이루어졌으며
이 승리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흘린 피로써, 쏘련
인민과 조선 인민의 친선
은 굳게 맺혀졌나니,
여기에 탑을 세워 전
인민의 감사를 표하노라.

1945년 8월 15일

(해방탑 앞에 새겨 있는 글)

박 근

어린 동무들아!
우등'불 더욱 높이 질여라.
내 이제 새나루 바다에 선참 오
　셨던
쏘련 군대 아저씨들 이야기 들
　려 주마.

10년전, 8월 13일이였단다.
쏜살같이 달려온 많고 많은 군
　함에서
쏘련군대아저씨들 용감히용감히
새나루 바다'가에 올라 오셨지.

겁을 먹은 왜놈들 군도를 빼여
　들고
허둥지둥 이곳에 달려왔으나

가슴마다 따바리총 껴안은 아저
　씨들
뚜루룩 뚜룩—왜놈 군대 짓부셨
　단다.

이때부터 이땅엔 웃음소리 높
　았고
조국의 독립만세 힘차게웨쳤단다
이때부터 잃었던 제말도 찾고
하늘 높이 우리의 기'발을 날렸
　단다.

바로 저기 저 언덕 밑이란다.
안드레이아저씨 첫번으로 달려와
왜놈들을 남김없이 무찔러버리고
감옥속의 아버지들 건져낸곳이.

— 청진 감옥 해방　　림 백 그림

바다'가를 무심히 지나지 말
　어라!
자랑스런 우리 마을 새나루 바
　다'가는
쏘련 군대 아저씨들 선참 왔
　던 곳,
오늘은 이곳에 새살림 꽃피여
　난다.

보아라 높이 솟은 공장 굴뚝과
황금 빛 넓고 넓은 저 들판을
너희들은 두고 두고 잊지를
　말라!
층층 높은 벽돌집 밝은 교실에
웃음과 노래'소리 가져다 준 아
　저씨들을…

너희들은 언제나 명심하여라.
쏘련군대 아저씨들 열어놓은 길
　우에서
공부도 잘하고 어서빨리 자라서
이 나라 훌륭한 기둥 되여라.
어린 동무들아!
더욱 더 우등'불을 높여라.
갈매기도 훨훨 춤을 추는구나
쏘련군대 오셨던 바다'물결 우에

아이들아! 모두다 노래 부르자!
쏘련군대 아저씨 잊지 못할 아
　저씨들
우리의 노래를 훨훨 날려
끄레믈리 별빛 아래 울리여 보
내자.

나의 조국 영광스러운 나라

아침 해 솟으면
해방탑 붉은 별빛은
온 누리에 비친다.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
아침은 빛나라.

저기 용광로 이글 이글
시'뻘건 쇠'물을 뿜어내고,
철탑은 뻗어

거리와 마을로 흘러간다.

보아라!
10년 전엔 풀숲 우거졌던 저 자
리에
오늘은 새 공장이 일어서 가고
두해 전엔 재'더미로 묻혔던
거리와 마을에
오늘은 더 훌륭한 학교와 집들이
자랑스럽게 일어서 간다.

아이들아. 가슴 펴고 노래 부르자.
쏘베트 나라 의로운 용사들이
해방의 새날을 가져다 준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을,

저기 넓은 들판엔
금빛 이삭들 바람에 설렁거리고
저기 푸른 바다 우엔
고기'배 물'결 헤치며 달리여
온다.

아이들아, 얼마나 좋으냐.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
앞길 밝히시는 나라,
쏘련, 중국, 온 세계 인민들

따뜻한 손'길 보내여 주는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은,

저기 푸른 고지들마다
원쑤들을 물리친 영웅의 고지
높고 높은 저 하늘도
원쑤들을 물리친 영웅의 하늘
넓고 넓은 저 바다도
원쑤와 싸워 이긴 영웅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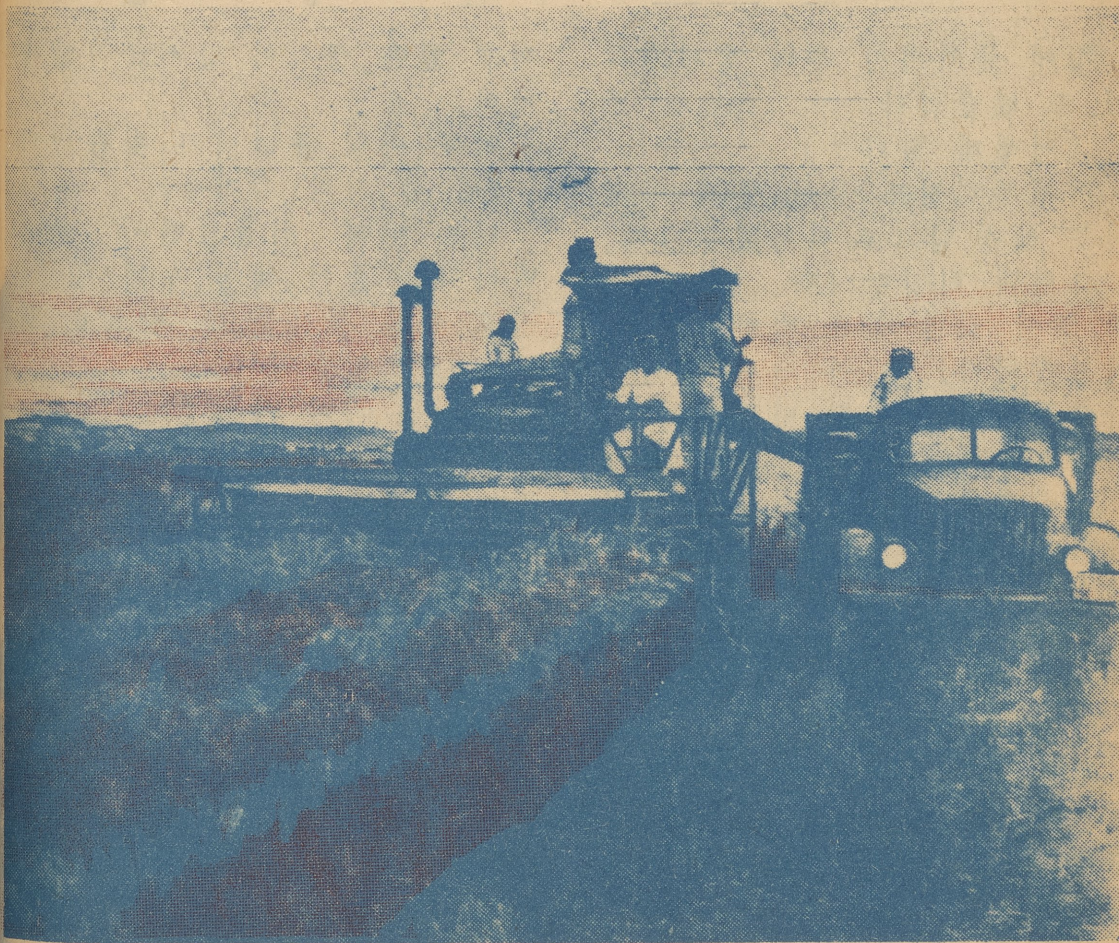
아이들아!
영웅 조선 어린이 자랑도 높이
이 아침 어서 학교로 가자.

아버지 어머니들 새로 지어 준
학교
우리들은 얼마나 즐거우냐.

우리들이 즐겁게 배워 나갈 때
저기 남쪽땅의 어린이들
굶주리며 길'가에서 헤맨다.

우리들이 즐겁게 야영을 떠날때
저기 남쪽땅의 어린이들
원쑤놈들 구두'발에 짓밟힌다.

아이들아, 언제나 잊지를 말자.
남쪽 땅의 어린이들도 우리와
함께
공화국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나야 함을

아침 해 솟으면
해방탑 붉은 별빛
온 누리에 비치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
앞길 밝히시는 나라.

아이들아, 노래 부르자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
날에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차는
나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은
어린이들을 부른다.
—영웅 조선의 어린이들이여!
어서 훌륭하게 배워
이 나라의 보람찬 일'군으로 자
라나거라,—라고

친선의 붉은 넥타이

원 웅 건

집에 들어서자 문뜩 숙제생각이 또 났습니다.

(어떻게 할가?)

이제부터라도 풀어 볼가 하고 나는 책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책상 우에 놓여 있던 붉은 넥타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책상 우에는 산수책이랑 노트랑 연필만이 되는대로 놓여 있을 뿐입니다.

책상우를 살피고 설합을 둘쳐 보아도 붉은 넥타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 경순이 작난이 틀림 없어…》.

얼핏 내 짐작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전에 나는 숙제를 하느라고 책상에 마주 앉기는 했으나 좀체 마음이 깔아앉지 않았드랬습니다.

자꾸만 순남이랑 같이 뽈을 차고 싶은 생각이 앞서군 했습니다.

이때 마침 순남이가 왔습니다

《애 뽈 차려 가자우》.

나는 바삐 서둘르면서 붉은 넥타이를 풀어 책상 우에 내 던지고 뽈을 찾아들고 박으로 뛰여 나갔드랬습니다.

《형 뽈 차려 가니?》.

대문깐에서 내 동생이 묻는 말에

《경순아! 넌 누나가 협동 조합에서 돌아 올 때까지 집 보구 있어야 해!》.

그로부터 한 두어시간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야단이 났습니다. 나의 붉은 넥타이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넥타이랍니다.

《틀림없어! 경순이가 매고 나갔을꺼야…》.

나는 밖으로 뛰여 나가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경순아! 경순아!》

나는 대문 밖으로 뛰여 나가다 누나와 동생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랬지요.

동생의 목에 나의 붉은 넥타이가 매여 있었습니다. 붉은 넥타이는 흙탕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식아! 넌 넥타이를 어떻게 건사했댔니?

내가 논 김 매고 있는 저 논뚝 길에 얘가 자빠져서 엉엉 울고 있었지…》.

《…………》

누나 말에 나는 아무말 없이 우둑하니 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동생도 마음에 찔리운듯 하였습니다.

《벌써 너는 싸샤와의 약속을 잊어 먹었느냐?》

라고하면서 누나는 동생 목에 매여 있는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지요.

싸샤는 먼곳에 있는 나의 친한 동무입니다.

싸샤의 어머니는 쏘련의 훌륭한 의사입니다. 내가 인민학교에 들어 가기 전 일이였지요.

우리나라가 쏘련 군대 아저씨들의 힘으로 해방된 다음 다음해였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 누나는 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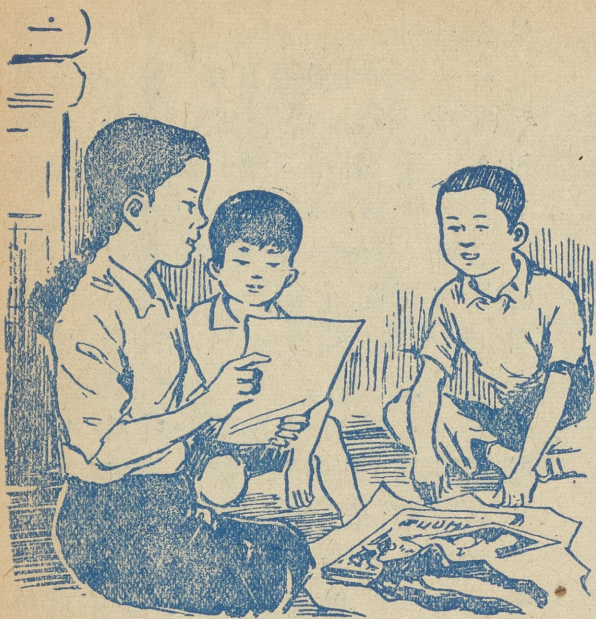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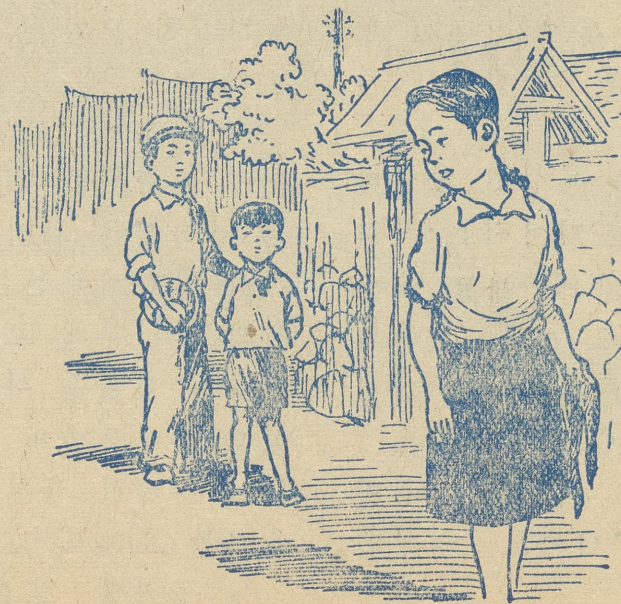
하루는 적십자표를 단 자동차 한대가 우리 마을에 찾아 왔었지요.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원들이 내리였습니다.

멀리 모쓰크바에서 오신 선생님들이였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싸샤의 어머니도 끼워 있었습니다.

싸샤 어머니는 누나의 병을 진찰하고 주사도 놓아주고 소독도 해주었습니다. 싸샤 어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며칠 묵으면서 누나의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싸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싸샤 어머니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있어. 근데 넌 벌써 싸샤가 보내준 이 넥타이를……?》.

누나는 흙탕물에 젖은 붉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때 일을 눈앞에 그려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나는 나에게 편지와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안나 선생님이 생각나지, 이애는 싸샤이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나는 나에게 또 이렇게 말했지요.
《경식아! 편지 잘 들었지. 이건 네게 보내온 싸샤의 선물이다》.
누나는 붉은 넥타이와 모쓰크바 동물원 그림책을 내앞에 내놓는 것이였습니다.
《야—멋있는 넥타이!》
하고 나는 너무도 기뻐서 방안을 한바퀴 뛰였습니다.
《…모쓰크바에서 보내 온 친선의 넥타이를 너는 소중히 매고 다녀야 해. 잘 알았지—》.
《잘 알았어요》.
나는 차렷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머리맡에 놓아보기도 하고 담벽에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입단 서약식때 다짐한 나의 맹세가 자꾸만 생각되였습니다. 이 하나의 넥타이가 다만 목에 걸고 다니는 천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넥타이는 학습을 잘하고 규률을 잘 지키고 앞날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겠다는 맹세의 표식이라고 선생님과 누나가 거듭 일러주었지요.
그후 나는 싸샤에게 친선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싸샤에게서 모쓰크바 소식과 삐오네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싸샤는 한반에서 공부하는 사이처럼 친한 동무가 되였습니다. ……
《너는 싸샤와 무어라고 약속했니?》.
《………》.
나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싸샤에게 편지 할 때마다 나는 이제 크거든 미츄린 선생님 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였습니다.
싸샤는 자기 어머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했지요.
우리는 서로 꾸준히 배움으로써 약속을 빛나게 지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참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싸샤로부터 온 붉은 넥타이를 그 동안은 잘 거두군 했었지만 요지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는 제때에 숙제도 하지 않고 집 일을 돕지 않고 뽈 차려만 다니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싸샤가 요지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얼마나 나를 나무래겠어요.
정말 나는 싸샤와 서로 굳게 다진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나 앞에서 나는 그냥 머리가 숙으러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내였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일과표대로 꼭 지켜야겠다!)
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항상 준비!》.
하고 나는 누나를 울려다 보면서 소년단의 경례를 했습니다.
《우리 경식이는 참 용해…… 훌륭한 소년단원이거든, 이 넥타이는 내가 빨아주께 걱정말아—》.
누나는 우물'가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였습니다. 동생도 누나를 따라가면서
《형처럼 나두 소년단원이 될려고 했지 뭐…》.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숙제할 마음으로 또다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샤와 서로 다진 약속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벗들에게

— 모쓰크바 제201호 학교 삐오네르 동무들에게 —

사랑하는 삐오네르 동무들!

우리들은 지금 소년단실에 모여 앉아 이 편지를 씁니다.

8•15 해방 열돐을 맞이하는 기쁨을 먼곳에 있는 동무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이지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며 공부한답니다.

우리들은 아침 해'님이 활짝 피여 오를 때면 복구 건설의 노래 우렁찬 쓰딸린 거리를 지나 학교로 오지요.

해방의 은인인 쓰딸린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여지는 자랑스러운 이 거리에는 새로 내각 종합 청사와 국제 호텔, 로동자 아빠트, 영화관, 유자녀 학원 등이 줄지어 섰답니다.

두해전만 해도 이 거리는 미제의 폭격에 재'더미로 되였던 거리랍니다.

우리 나라 로동자 아저씨들은 민주 수도의 복구 건설에서 쏘련 인민들이 보내준 훌륭한 기계로 많은 일을 눈부시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8•15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는 평양은 지금 아름답게 단장되였지요.

삐오네르 동무들!

우리 학교 대에서는 지금 이 기쁜 해방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가지 뜻깊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쏘련 군대 아저씨들의 은공을 기념하는 전람회를 가지고 있지요.

이 전람회에는 쏘련 군대 아저씨들의 투쟁 모습과 동무들의 행복한 생활을 나타낸 사진들도 있고 동무들에게 보내려고 우리들이 마련한 사진 스크래뿌크와 동식물 표본도 있답니다.

이 동식물 표본은 우리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만든것이지요.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학교 대위원회는 8•15 해방 열돐맞이 기념으로 학교 정원에 조쏘 친선을 기념하는 립상을 세우기로 의논했답니다. 이것은 쏘련 삐오네르와 조선 소년단원이 굳게 손목을 잡고 선 립상이랍니다.

이제 립상이 완전히 서는날 동무들에게 이 립상의 사진을 보내드리지요.

우리들의 친한 벗 삐오네르 동무들!

우리들은 위대한 쏘련의 수도인 모쓰크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무들과 언제나 가까이 그리고 더욱 정답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 동무들의 즐거운 생활을 편지로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무들이 살고 있는 가까이에 조선을 해방시키던 전투에 참가한 용감한 쏘련 군대 아저씨들이 계시지 않는지요.

그 아저씨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 주세요.

사랑하는 삐오네르 벗들에게 소년단 경례를 보내면서……

1955년 8월 10일

조선 소년단 평양 제4녀자 중학교 대 (인민반) 제7분단 일동

……자강도 성간 인민 학교 대에서……

박 정 렬

새 학년도 첫날 소년단원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학교의 전람회를 구경합니다.

전람회장에 들어서면 월계수로 테두리한 벽보들이 눈에 띄웁니다.

진렬대에는 여름 방학 동안에 소년단원들이 솜씨있게 만든 훌륭한 선물들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의 교편물로 쓸 고향의 식물 표본, 곤충 표본, 광물 표본들이 있습니다.

《야! 이 식물 표본은 누가 만든거야》.

벽보를 읽던 동무들이 식물 표본 앞에 모여 왔습니다.

《영숙 동무와 그의 반 동무들이 만든 방학간 선물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자연과 교편물로 될 것이지요》. 선생님도 식물 표본을 보시며 칭찬하십니다.

× ×

학년을 마감 짓던 날이였습니다.

영숙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통지표를 받았지요.

그것은 지난 학년 동안에 다른 모든 과목에 비하여 "자연과"에 노력을 덜 바쳤고 학년말 시험 때에는 자신있게 답안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년말 시험 때 자연과에서는 《할미꽃과 오랑캐 꽃의 뿌리를 그리고 설명하시요》라는 문제가 났지요.

영숙이는 그때 땀을 뺐습니다 자연과를 그저 쉬운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자연 관찰과 복습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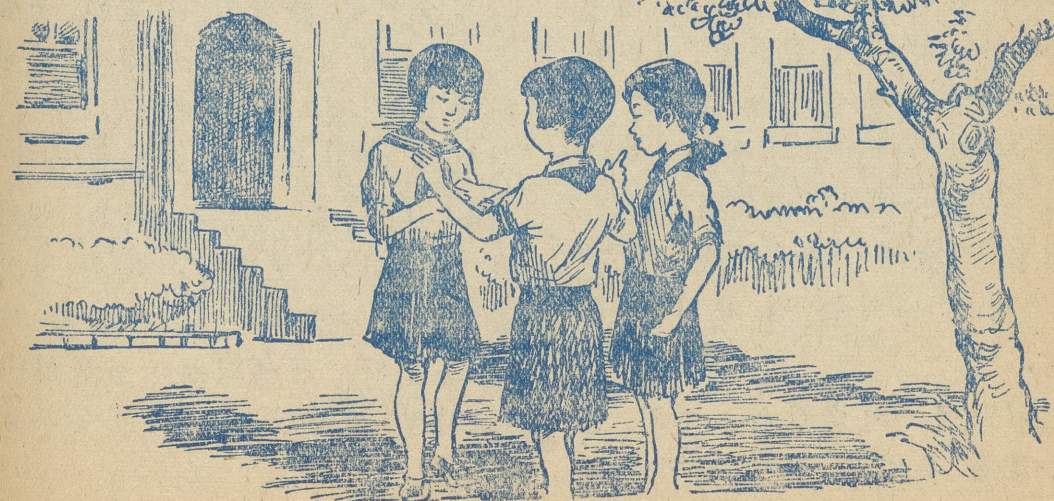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표를 펼쳤습니다.

력사가 4점이고 다른 과목은 모두 5점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연과만은 3점이 아니였겠어요.

이것을 들여다 보는 영숙이는 여간 분하지 않았지요.

이때 선생님은 영숙이에게 《영숙동무는 지난학기보다 퍽 공부를 잘 했어요. 다음 학년도엔 뒤떨어진 자연과에 좀더 힘쓰면 최우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영숙이는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자연 관찰을 하면서 자연과를 훌륭하게 복습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졌습니다.

× ×

여름 방학의 하루 하루는 참으로 즐겁고 보람이 있었지요.

영숙이는 아침 일찌기 일어나 일과표대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였답니다.

영숙이의 일과표에는 이런 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향의 식물과 곤충의 표본을 만들 것》. 영숙이는 이 일을 반 동무들과 의논하였지요.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가자》하고 응선이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우리들이 모두 너를 도와 줄테야》.

이리하여 영숙이와 그의 반 동무들은 여름 방학 동안에 고향의 식물과 곤충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영숙이와 반 동무들은 학교 도서실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동무들에게》라는 책을 빌려 읽으면서 자연을 어떻게 관찰하며 표본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더 많은 표본을 만들었고 협동 조합의 일을 도와 늦벌레를 잡으면서도 자연과에서 배우지 않은 많은 곤충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벼를 해치는 명충들이 알에서 나비가 될때까지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도 보고 어떤 곤충들이 농작물에 도움을 주며 어떤 곤충들이 해를 끼치는가를 배워나갔지요.

서로 식물과 곤충들을 더 많이 채집할 내기는 퍽 재미 났습니다.

이리하여 영숙이와 그의 반 동무들은 은방울 꽃과 할미꽃을 비롯한 야생 식물 표본 20여점과 재배 식물 표본 그리고 곤충 표본도 여러 점 만들어 여름 방학의 선물로 새 학년도 첫날 학교의 전람회에 내 놓았지요.

전람회를 구경하신 선생님은 영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숙이는 방긋이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선생님, 인젠 다른 과목들 처럼 자연과에도 자신이 생겼어요》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음! 영숙 동무는 여름 방학을 훌륭하게 보냈어, 배운 지식을 더 잘 다져온 것, 이것이 영숙 동무의 첫째가는 선물이지요》하고 선생님은 영숙 동무를 칭찬했습니다.

기념탑 둘레를 가꾸지요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의로운 쏘련 군대가 첫 상륙한 청진—

이 거리 한 복판에 쏘련 군대 기념탑이 우뚝 솟아 있지요.

수남땅 넓은 벌과 색 나루 바다를 굽어 보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 기념탑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준 고마우신 쏘련 군대 아저씨를 생각하지요.

올봄에 우리들은 이 기념탑 무레에 아름다운 꽃들과 잔디를 떠다 심었고 이 거리 량쪽 길 옆에 코스모스를 줄지어 심어 놓았지요.

지금 이 꽃들은 활짝 피였고 잔디는 푸르게 단장되였습니다.

8•15 해방 열 돐을 맞으면서 우리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거리와 기념탑 주위를 깨끗이 쓸고 잔디와 꽃들도 정성껏 가꾸어 주지요.

쏘련 군대 아저씨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청진 제14 인민 학교 대

제6분단 위원장 최 정 자

나의 자랑

신천군 새 기'발 농업 협동 조합

제3작업반 **김 봉 학**

구월산을 북쪽에 바라보며 남쪽으로 나무리'벌과 잇닿은 상동벌—

이 벌은 내가 나서 자라 일하는 아름다운 고향 마을이랍니다

우리 마을에는 작년 3월부터 《새 기'발 농업 협동 조합》이 생겨 났지요.

나는 지금 이 농업 협동 조합 제3 작업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내가 신천 제3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 협동 조합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7월이였지요.

졸업을 앞둔 어느날 선생님은 나에게 물으셨답니다. 《이제 졸업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때 선뜻 대답했지요.

《농촌에 나가 훌륭한 일'군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은《참 훌륭한 생각을 했군》하며 칭찬해 주시였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였지요.

나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농촌에 나가려는 생각보다 웃 학교에 갈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3학년에 올라온 때부터 나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였어요.

나의 아버지는 일제때 지주놈의 땅에서 고된 일에 시달리던 남어지 세상을 떠나셨고 해방후 땅의 주인으로 보람있게 일하여 로동당원으로 되였던 어머니도 후퇴시기에 마을을 끝까지 지켜내다 원쑤놈들에게 학살되였지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꾸시던 땅에서 보람있게 일하고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농촌에서 일하며 배우고 훌륭한 일'군이 될 것을 굳게 마음 다져왔던 것이지요.

지금 나의 하루 하루는 참으로 보람있고 슬기롭습니다.

아침 노을이 비쳐오기 시작하면 나는 조합내 민청원들과 함께 협동 조합 논밭으로 나가지요

금년 봄부터 나는 처음으로 보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날마다 맡겨진 일을 넘쳐 끝내여 봄갈이를 마감 짓는 조합원 회의에서는 모범 일'군으로 칭찬까지 받았답니다.

나는 오늘도 논김 매기에서 책임량을 두배 반이나 넘쳐 해내였답니다.

내 손으로 심고 가꾼 탐스러운 벼포기들이 싱싱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들판에서 일하는 로력의 영예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한없는 기쁨에 잠긴답니다.

지난 1년 동안 협동 조합 생활에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요.

나는 논밭에서 일하면서 새 영농 방법들을 많이 배웠고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튼튼한 몸과 의지를 키웠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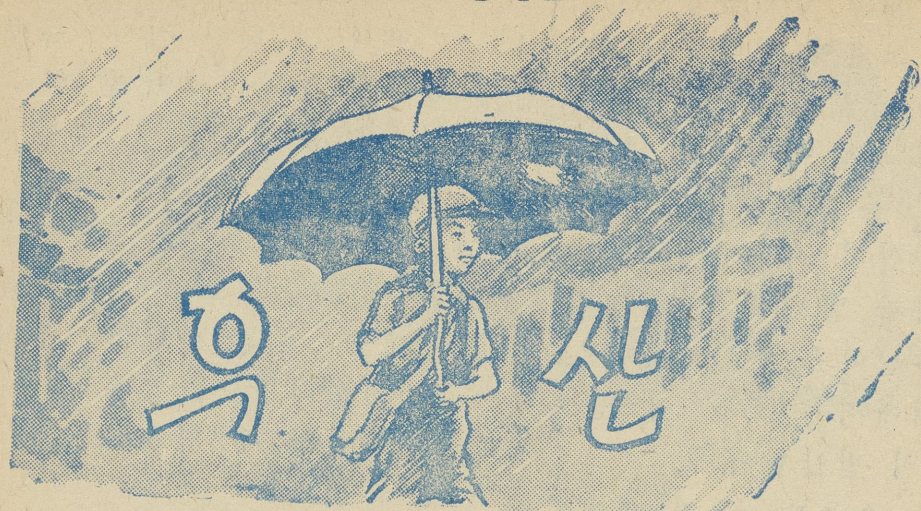
동무들도 우리 나라 농촌의 보다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앞으로 뜨락또르 운전사로 농업 기술자로 훌륭히 자라날 것을 바랍니다.

이제 몇해만 지나 동무들이 농촌에 나오는 그때면 우리 나라의 농촌은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리만치 변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만 해도 구락부와 공원이 만들어지며 마을 뒤'산에는 푸른 산림이 우거지고 그 기슭에 심어 놓은 과수원 속에 훌륭한 재 마을이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우리 나라의 농업을 하루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돌리고 있는 깊은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바쳐 일하며 더욱 열심히 배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 봉학 동무가 조합원들과 함께 논 김을 매고 있다

민청 창립 9주년 기념 현상 문예 3등 당선

김 재 원

올 봄 들어 첫 비 내린 날입니다.

철이네 교실안 뒤'벽에는 비에 함박 젖은 비옷들과 우산들이 죽 걸렸습니다.

철이의 《우산》도 그속에 끼웠는데 퍽 기쁜 얼굴들입니다. 겨울내 한번도 바깥 구경이라고는 못하고 장 속에 처박혀 있노라니 갑갑해 죽을 지경이였으니까요.

철이의 《우산》은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던 낯 익은 비옷들과 우산들이 모두 비'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으나 다만 용순이의 《우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이의 《우산》은 금시 서운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여름까지 철이의 《우산》은 용순이의 《우산》과 가지런히 국영 백화점 진렬대에서 의좋게 살아 온 사이니까요.

그때 백화점에 매일 밀려오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두 우산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소근 거렸지요.

《어떤 사람이 우릴 사갈가?》.

《글쎄 말이야 우린 같은 사람에게 팔려 갔으면 좋겠어, 언제나 같이 지내게》.

그런데 하루는 점잖은 어머니 두분이 우산들이 있는데로 오셨습니다. 그중 한 어머니가

《인제 장마철이 될텐데 철이 우산을 하나 사다 줘야겠어요…》 하고 말하자

《참 우산이 아주 좋구만요. 그럼 우리 용순이 것도 사야지요》하고 같이 온 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우산은 그날 부터 용순의 《우산》과 철이의 《우산》으로 되였지요.

며칠 후에 비가 내렸답니다. 많은 낯선 우산들이 걸려 있는 가운데서 용순의 《우산》은 그립던 철이의 《우산》을 만났습니다

두 《우산》은 반가워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용순이와 철이가 같은 반 아이들이라는걸 알았으니까요.

두 《우산》은 백화점에 있을때보다 더 친해지고 더 정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비오는 날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내 비오는 날이면 두 《우산》은 꼭꼭 만나군 했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지자 《우산》들은 만날길이 없어졌습니다.

철이의 《우산》은 깨끗이 먼지를 털리이고 차곡차곡 개여져 지난 봄에 중국에서 원호 물자로 나왔다는 검은 고무 장화와 함께 당반 우에서 한겨울을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오랫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나왔으니 으레히 용순의《우산》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보이지 않으니 섭섭할 밖에 없지 않겠어요.

벌써 공부 시간이 되여서 아이들은 조용이들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 그앤 아파서 학교엘 못나왔나? 그렇지 않으면 먼데 이사를 갔나?》.

철이의 《우산》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멎지 않고 그냥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조용한 교실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아이가 비에 젖어 눈을 깜빡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애는 《우산》을 받고 온 모양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옷이 폭 젖었습니다.

지각한 것이 부끄러워서인지 그애는 제 자리에 들어와 앉지도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며 문어구에 그냥 서고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지요》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야 젖은《우산》을 뒤'벽에 걸고 제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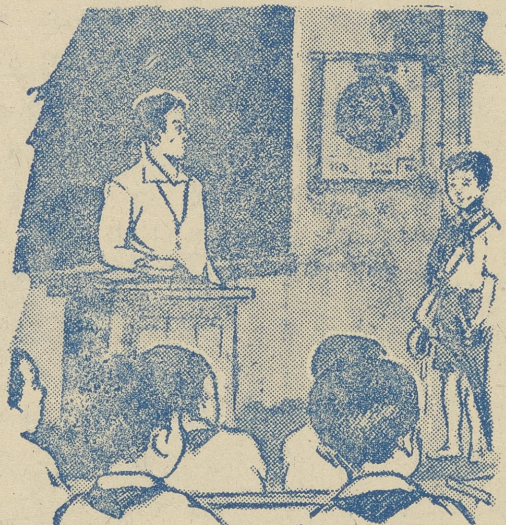
그애는 용순이였습니다.

비'물이 뚝뚝 흐르는 용순의 《우산》이 벽에 걸리자 철이의 《우산》은 너무 반가워서

《야! 오랫만이로구나 그새 잘 있었니》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철이의 《우산》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순의 《우산》이 왜 저 꼴일가?

반들 반들하던 손잡이는 뚝

꺾어지고 온 몸이 보기도 숭하게 상처투성이가 되여 구멍이가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아이 너 왜 그 모양이냐?》.

한참 말없이 쳐다 보고만 있던 철이의 《우산》이 가만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용순의 《우산》은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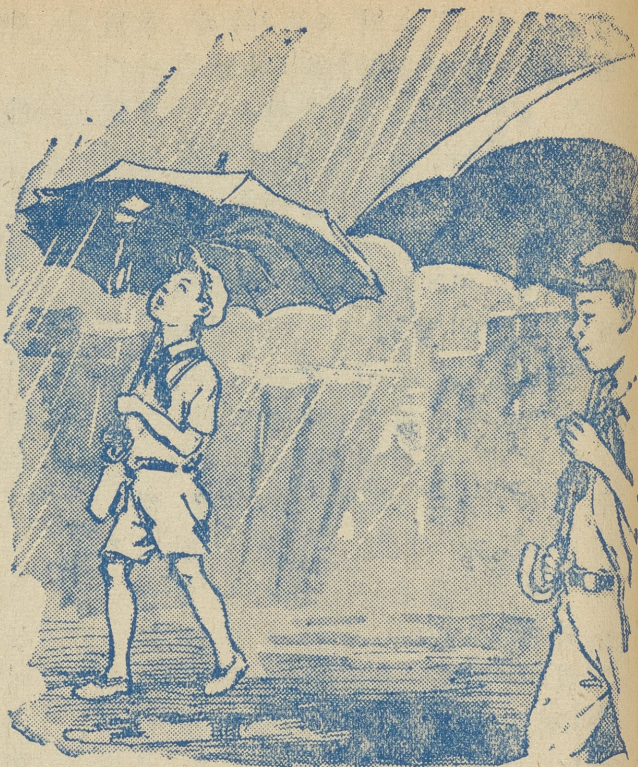
한참 후에야 용순의《우산》은 한숨을 후― 내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까진 용순이가 나를 잘 거두었어, 그런데 여름이 다 가니깐 그애는 나를 고'간 구석에 되는대로 팽개치지 않았겠니. 그래서 난 온 겨울내 쥐한테 뜯기웠단다. 그리고도 그애는 날 고'간 구석에 다 되는대로 내던진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날 찾느라고 야단 법석했지. 그러다가 학교에 늦기까지 하구…》

곁에서 듣고 있던 딴 《우산》들도 용순의 《우산》을 불상히 여기여 한숨들을 쉬며

《그애는 제것도 잘 거두지 못하는 애로구나》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용순의 《우산》은 딴 우산들이 어찌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다 끝낸 모양인데 밖에서는 비가 멎지 않고 주룩주룩 제법 소리까지 내면서 내립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제 《우산》들을 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철이와 용순이도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몇발자국 안가서 용순인 그만 화가 났습니다. 우산의 찢어진 구멍으로 비'물이 사정없이 새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철이의 《우산》은 용순의 《우산》에게 가만이 속삭입니다.

《비 맞는 용순이가 불상하지 않니》.

《불상하지만 난들 어떻게 해》.

용순의 모자에서는 비'물이 철철 흐릅니다.

이때 나란히 걸어가던 철이가 《아니! 넌 우산이 왜 벌써 그 꼴이냐 어떻게 간수했길래 그래!》하고 용순이에게 말하는

것이였지요.

그러나 용순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지요.

《용순아 내 우산을 함께 쓰고 가자》.

철이가 말했지요.

그제서야 용순이는 아마 물건을 아껴쓰지 못하고 되는대로 굴린 일을 몹시 후회하는 모양이였습니다.

《괜찮어! 너까지 흠빡 젖을라구》.

용순이는 찢어진 구멍으로 떨어지는 비'방울을 쳐다보며 철이에게 대답하는 것이였지요.

× ×

며칠후 어느 비오는 날에 두 《우산》은 교실에서 다시 반갑게 만났습니다.

용순의 《우산》은 전날보던 우산과는 아주 딴 새 《우산》이 되였습니다. 찢어졌던 구멍들은 모두 기워졌고 부러졌던 손잡이는 용순의 솜씨로 맵씨 있게 깎아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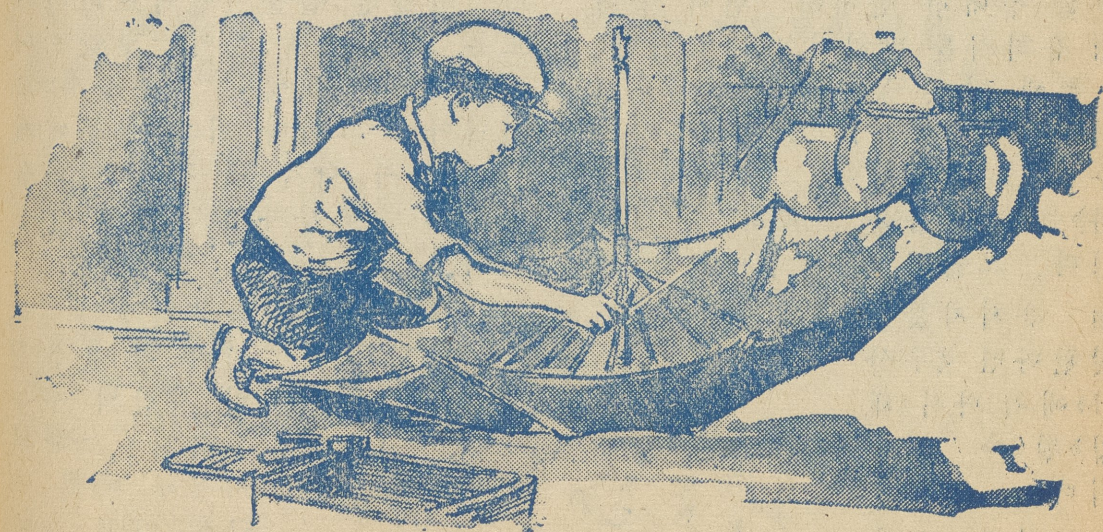
《아니! 넌 인제 달라졌구나》

철이의 《우산》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용순의 《우산》은 벙글거리며

《응! 그앤 참 착해. 이렇게 제손으로 날 깨끗이 고쳐주고는 저의 어머님께 앞으론 새 물건만 사달래지 않구 있는 물건을 깨끗이 쓰고 아끼겠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어제 저녁엔 전에 방구석에 내버렸던 연필 꽁다리도 다시 주어 모았고 팽개쳤던 공책에서 남아 있는 장들을 모아 다시 새 공책도 만들었어!》하고 말하는 것이였지요.

곁에 걸려있던 여느 《우산》들도 모두

《참 착한 애로 되였구나!》하고 감탄했습니다.

이 놀음을 배웁시다

이 놀음은 뽈과 유희장을 마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유희장은 길이 18M, 너비 9M의 구형을 그린 다음 이 구형을 두개의 정방형으로 나눌 금(중간선)을 긋고 구형의 량쪽 끝에 1.5M의 사이를 두고 각각 금을 그으면 됩니다. (그림을 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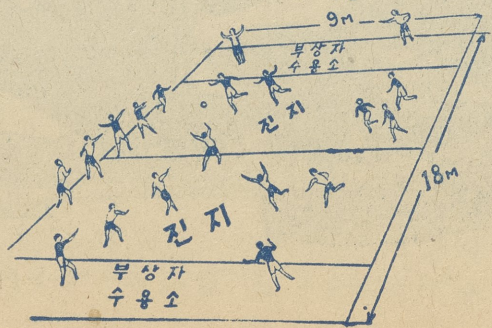
10명씩으로 나뉘여진 두 팀은 각각 자기 진지에 적당히 섭니다. 이 때 두 주장은 중간선에 섭니다.

피구 놀음은 심판원이 호각을 불면서 뽈을 중간선 우로 올려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중간선에 섰던 주장들이 서로 자기가 뽈을 먼저 잡으려고 하며 이때부터 유희자들은 뽈을 상대편 진지에 던져 상대편 유희자를 맞히려고 애씁니다.

뽈에 맞은 동무는 상대편 진지 뒤에 만들어 놓은 《부상자 수용소》로 갑니다. 그러나《부상자》들은 놀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뽈을 잡아서 상대편 유희자들을 맞힌다면 《부상자》에서 다시《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음은 15분간 계속됩니다. 이리하여 상대편을 많이 《부상》시킨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놀음이 진행될 때 금밖으로 나가거나 상대편 진지 또는 《부상자 수용소》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만일 한 팀의 유희자가 이 놀음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팀은 《부상》된 자기 팀 유희자 중의 한 사람을 데려 오거나 또는 《부상》된 동무가 없을 때에는 앞으로 뽈에 맞은 자기 팀 유희자를 《부상자》로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희자가 뽈을 완전히 잡았을 때에는 그것이 맞은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잡았던 뽈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의 몸에 뽈이 닿았으나 잡지못했을 때에는 《부상자》로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동무에게 맞고 다시 튕겨난 뽈에 맞았을 때에는 《부상자》로 되지 않습니다.

※유희장의 크기와 이 놀음을 할 사람의 수는 유희할 그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순철이가 부른 노래

(순철이는 남반부의 어린이랍니다)

흰 구름아

리 맥

맑고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아
내 노래 전하여 주렴.

저기 저 강 건너 산 넘어
꽃 피는 북쪽 땅
그리운 아이들에게,

내 노래 전하여 주렴.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아,
저기 저 하늘'길 날아 날아

김 일성 원수님 계신
공화국의 품 속
그리운 아이들에게,

강이면 얼마나 건너 가나,
산이면 몇이나 넘어 가나,

원쑤놈들 둥이 튼 여기 남쪽 땅
에선
편지를 써도 보낼 길 없고,
차'길도, 배'길도 원쑤놈들 가
로 막아,

한 나라 한 하늘 아래 살아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부러운 공화국의 아이들,

날마다 손목 잡고 노래 부르며
따뜻한 공화국의 품 속
한 학교,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며 지냈으면
그럼 얼마나 좋을가!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아
내 마음 전하여 주렴.
김 일성 원수님 품 속에 안겨
즐겁게 배우며 뛰놀고 싶은

뜨겁고 뜨거운 이 마음을,

내 노래 들어다우

난 집도 없고
엄마도 아빠도 없고
난 학교도 못가는 아이

여기 남쪽 땅엔
나같이 불행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루라도 학교에 다녀 보았으면,
하루라도 따뜻한 집에서 살았
으면,
그러나 여기 남쪽 땅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

부러운 북쪽 땅의 아이들아
내 노래 들어다우.
지난 봄 학교 문 밖에서
내가 쫓겨난 이야기를,

교장놈은

새'하얀 테안경 쓰고
승냥이처럼 이'발 뻗은 놈,

—집이 어디냐?
첫 마디 묻겠지
—집은 없어요.

—입학금이 있느냐?
두번째 묻겠지
—입학금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교장놈은 코'날 세우고
가쁜 숨 헐떡 벌떡

—꼭 학교에 다니고싶은 마음뿐
이야요.
—무엇이? 거렁뱅이같은 놈!

내 노래 들어다우.
이리하여, 나는
원 몸 피투성이가 되여
땅바닥에 쓰러졌단다.

그리운 아이들아
나에게 묻지 말어라
—네 원쑤가 누구인가, 고

엄마와 아빠를
《빨갱이》라 잡아 간 놈
학교마다 군대 창고로 만들고,
조국의 통일 가로 막는 놈,
원쑤는 바로
미국놈들과
리 승만 역도놈들이지!

《학교를 달라!》

가슴 깊이 삐라를 품고 가는 밤
북쪽 하늘 우러러 보면
뭇 별들이 총총 빛나는구나.
저 별은 내 동무
나는 외롭지 않지요.

삐라에 써 놓은
다섯 자의 글
—학교를 달라!

이것은

로동자 아저씨가 써 준 글,
나는 뜨거운 마음 품고
밤거리를 걸어 가지요.

이제 저 골목길에 이르면
내 동무 풀칠하고
나는 담벽에 전주에
로동자 아저씨가 써 준 글,
불같이 품은 내 마음 아로새길
테다.

백번 원쑤놈들이 찢어버리면
백번 또 다시…
한 하늘, 한 공화국 기'발 아래
북쪽땅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배우며 뛰놀고 싶은
모든 남쪽땅의 아이들이 품은
이 마음을,

가슴 깊이 삐라를 품고 가는 밤
북쪽 하늘을 우러러 보면
뭇 별들이 총총 빛나는구나.
저 별은 내 동무!
나는 힘이 솟지요.

(1)

어떤곳에 쬐쮜기와 짹째기란 생쥐 두마리와 목청 굵은 수탉 한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쥐들은 다만 노래 부르고 춤 추는 것과 그리고 쬐쬐 짹짹하는 소리 밖엔 몰랐답니다.

그러나 수탉은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굵은 목청으로 꾜꾜하고 한바탕 울어대고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어느날 수탉이 뜰에서 소제를 하고 있노라니까 땅 우에 누런 밀 이삭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쬐쬐아 짹짹아— 수탉은 생쥐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것 봐라 큰 밀 이삭이다.

(3)

생쥐들은 뛰여와서 말합니다.

—이것을 뚜드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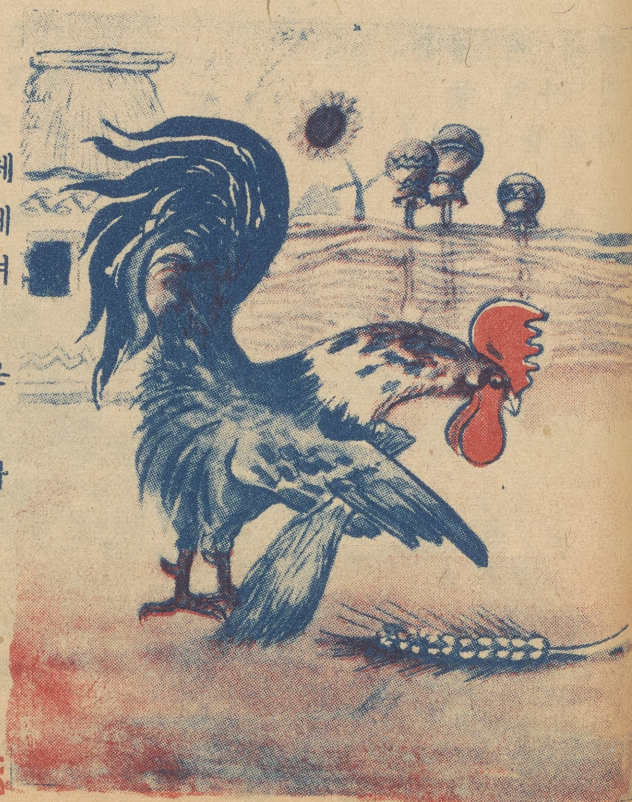
—그럼 누가 뚜드리겠느냐?

수탉은 물어 보았습니다.

—난 싫어요!

쬐쮜기가 말했습니다.

—나도 싫어요!

짹째기도 대답했습니다.

(4)

— 좋다 그럼 내가 뚜드리지— 하고 수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마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쥐들은 공을 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5)

수탉은 밀이삭을 다 뚜드려 놓고 소리를 쳤습니다.

—얘 쮜쮜아! 얘 짹짹아! 이것 좀 봐라! 밀알이 술하두 되누나.

생쥐들은 뛰여와서 목소리를 합쳐 쮜쮜짹짹거렸습니다.

—인젠 제분소로 가져다 가루를 봐야 해요!

—그럼 누가 가져 가겠니? 수탉이 물었습니다.

—난 싫어요! 쮜쮜기가 말했습니다.

—나도 싫어요! 짹째기가 대답했습니다.

(6)

—좋다 그럼 내가 제분소로 가져가지—하고 수탉이 말했습니다.

수탉은 밀자루를 어깨에 걸머지고 제분소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쥐들은 그 동안 뜀뛰기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를 번갈아 뛰여 넘으면서 좋아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7)

수탉은 제분소에서 도라오자 다시 생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빨리 이리 오너라. 밀가루를 봐아왔다……

생쥐들이 뛰여 왔습니다. 이걸 보고 칭찬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탉님! 인젠 반죽해서 빵을 구워야 해요!

—그럼 누가 반죽하겠니? 수탉은 물었습니다.

—난 싫어요! 쮜쮜기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싫어요! 짹째기가 대답했습니다.

(8)

수탉은 한참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수탉은 반죽을 한다음, 장재기를 가져다 난로에 불을 때기 시작했습니다. 난로가 달아오르자 거기에 빵을 빚어서 넣었습니다.

생쥐들은 그 동안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9)

수탉은 익은 빵을 끄집어 내여 식탁우에 갖다 올려 놓았습니다. 바로 이때 거기에 생쥐들이 찾아 왔습니다.

—아 배 고프다! —찍찍기가 말했습니다.

—아 시장하다! —짹째기도 지꺼렸습니다.

그들은 곧 의자에 앉았지요.

이 때 수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좀 기다려! 먼저 좀 물어 볼게 있다. 그래 밀이삭은 누가 얻었느냐?

—아저씨가 얻었죠! —생쥐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뚜드린 사람은?

—아저씨가 뚜드렸죠! —두 생쥐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밀을 제분소로 가져간 것은 누구냐?

—그것도 아저씨죠! —찍찍기와 짹째기는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반죽을 한 건 누구냐? 장재기는? 불을 피운 것은? 빵을 구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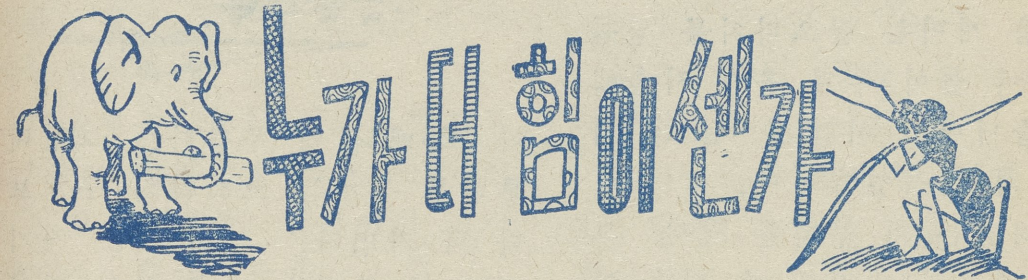
—모두 아저씨죠! 모두 다… 생쥐들은 들릴락 말락하게 입속에서 뇌까렸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무얼 했니?

무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찍기와 짹째기는 의자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탉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으름뱅이와 건달'군들에게는 빵을 먹일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가지 말

누가 더 힘이 센가

브·로씬

어느날 코끼리는 개미를 보고 이렇게 작고 약한 놈도 세상에 있느냐고 놀랬습니다.

《아직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센지 모르지요》하고 개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코끼리는 너무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길다란 코를 하늘에 추켜 들고 주위의 나무가지들이 뒤 흔들리도록 웃어댔습니다.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 사람한테 가 물어 보세, 사람은 심판해 줄거야》.

이리하여 그들은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뜻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힘내기를 하자면 누가 더 무거운 것을 드는지 보면 되지》하고 사람은말했습니다

《좋아요!. 개미는 동의했습니다.

《좋소》. 코끼리도 찬성했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서 너희들의 체중을 달아 보아야 하겠다》고 사람은 또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개미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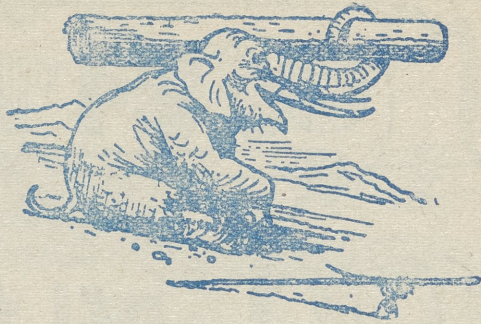
《나두 반대하지 않소》 코끼리가 또 우르렁거렸습니다.

개미는 제일 작은 저울로 달았으나 겨우 저울대가 움직일락 말락 하였고 코끼리는 제일 큰 저울로 달았는데 아주 큰 나무무게만 하여 하마트면 저울대가 꺾어질번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로 힘을 보이게》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굉장히 큰 통나무를 코로 감아 저울에 올려 놓았습니다. 사람은 그 통나무 무게를 적었습니다.

다음 개미는 짚오라기를 발돋음 하여 높이 추켜 올려 저울에 놓았습니다. 사람은 짚오라기의 무게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게를 각각 그들의 체중과 대비해 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짚오라기는 개미 무게보다 25배나 더 무겁다. 그런데 통나무 무게는 코끼리의 무게보다 더 가볍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더 힘이 센 것이다》.

(김 경식 역)

원 석 파

다섯살쯤 먹어 보이는 어린애가 길'가에서 고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잘못하여 공을 보'도랑에 떨구어버렸습니다.

흙빛이 섞인 보'물은 풀잎사귀와 함께 고무 공을 싣고 사정없이 흘러 내려갔습니다.

어린애는 어찌 할 수 없어 떠내려가는 공을 눈물어린 눈매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돌아오던 순남이네 패 셋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 하늘색 샤쯔를 입고 한손에 고무 장화를 벗어 쥔 인돌이가 어린애의 어깨를 흔들며

—얘 너 다음부터는 다시 공을 가지고 이런곳에 와서 놀지 말아. 그러면 또 공을 잃고 만다.

이 소리를 듣자 어린애는 울음을 참다 못하여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눈이 가느스레하고 앞'이마 머리칼을 곱게 짜른 인식이가 그애를 달래면서 귀가까이에 입을 대고

—얘 울지말아라. 너의 아버지하고 졸라 래일 새 공을 다시 사면 그만이 아니냐.

그러나 어린애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흐린빛이 떠나지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남이는 번개같이 재싸게 옷을 벗어 던지고 찬물에 철렁 뛰여 들었습니다.

물은 허리'동까지 올라와 소용도리 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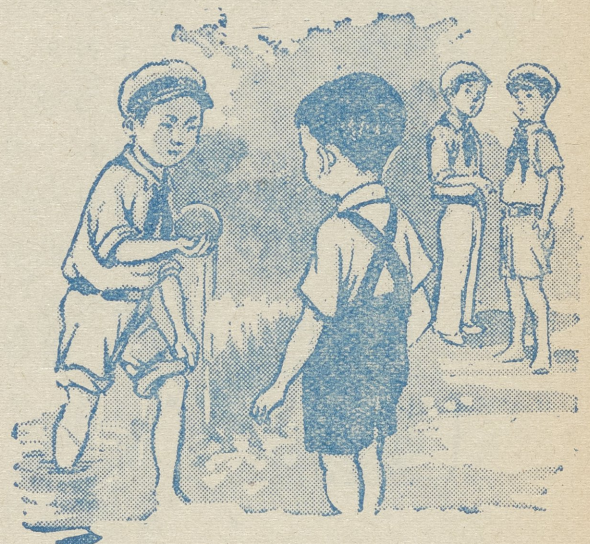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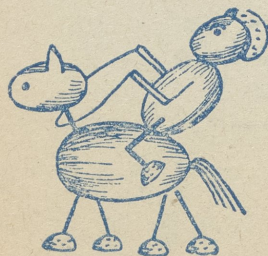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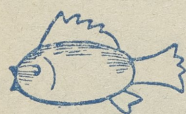
순남이는 헤염 쳐 공을 쫓아 갔습니다.

잠시후 순남이는 한손에 물빛이 번쩍이는 고무 공을 쥐고 머리'물을 털면서 길섶에 올라왔습니다.

순남이는 기운 있게

—얘 옜다.

하고 고무 공을 그애의 손에 쥐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린애의 얼굴에서는 밝은 웃음이 흘러 나왔습니다.

도토리로 만든 작난감들

도토리를 가지고 그림과 같은 작난감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가는 쇠줄이나 못쓰게 된 바늘, 그리고 색천 조박이나 또는 색종이와 잘 드는 칼이 있으면 됩니다.

도토리는 될수록 갓딴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리 새끼는 두 알의 도토리(큰 것과 작은 것)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도토리의 겉을 벗기여 그중 하나는 오리의 받치개로 씁니다. 받치개와 오리 새끼는 쇠줄로써 맞 붙입니다. 그리고 오리의 주둥이는 성냥갑의 한 쪼각을 가지고 만든 다음 연분홍색을 칠하십시요.

꼬리와 날개는 종이로 만들어서 칼로 짜갠 짬에 끼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오리의 눈을 먹으로 그리시요.

말 탄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맞붙이여 만듭니다. 말의 꼬리는 실이나 또는 삼오래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올빼미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빼미의 등에는 종이로 만든 날개를 붙입니다. 둥근 눈을 종이로 그려 붙이십시요.

사람의 발과 손, 새나 짐승의 다리들은 쇠줄이나 또는 뾰죽히 깎은 참대꼬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물고기, 토끼, 왁새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난감들을 몇개 합쳐서 큰 작난감을 만드는 것도 재미 있습니다.

합판을 적당히 짤라서 여기에 이끼를 붙이시요. 그 우에 목동을 세우고 그 옆에 가축들을 만들어 놓으면 훌륭한 작난감이 됩니다. 또한 가금(닭이나 오리)들과 모이를 주는 어린 소녀를 만들어 적당히 붙여 보십시요.

솔방울로 만든 작난감들

동무들은 그림에서 솔방울로 만든 작난감들을 보지요.

이 작난감들은 어떻게 만들가요?

도토리로 만들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솔방울로 만들고 싶은 동물의 몸둥이를 만들고 거기에다 종이로 만든 눈 주둥이 같은 것들을 붙이며 풀이나 또는 새털들을 꽂습니다.

두터운 소나무 껍대기나 곱게 떠낸 잔디들은 이러한 작난감들의 밑바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에는 여러가지의 적당한 자연물 풀 나무 돌맹이 같은 것을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밖에도 동무들은 나무나 풀 열매들로 여러가지 작난감들을 생각해 만들어 봅시다.

《두 동무》는 느·노쏘브의 중편 소설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쨔 말례예브》에 의하여 만들어진 쏘련 아동 예술 영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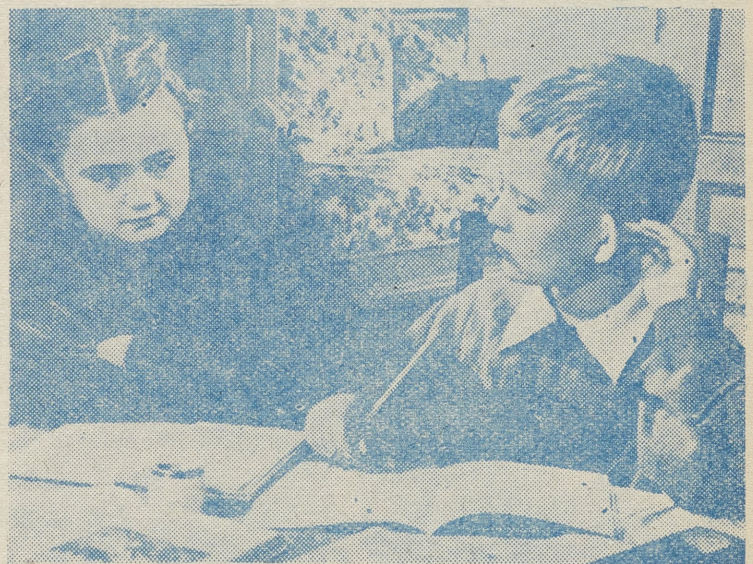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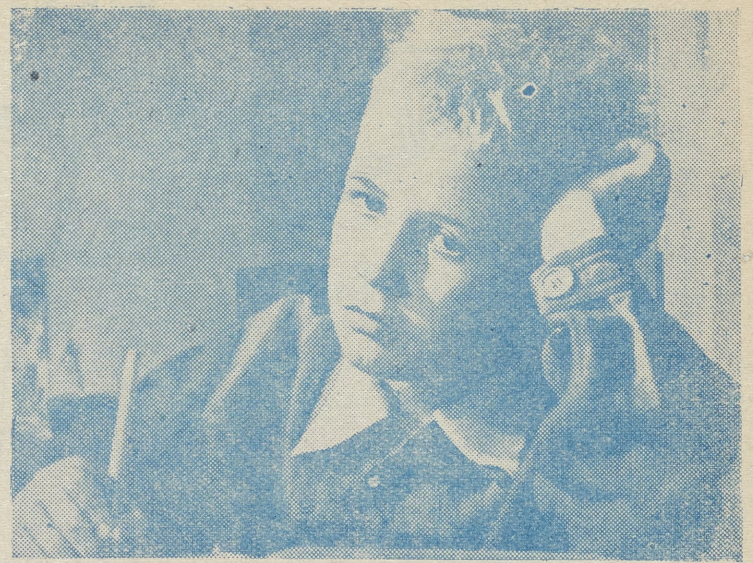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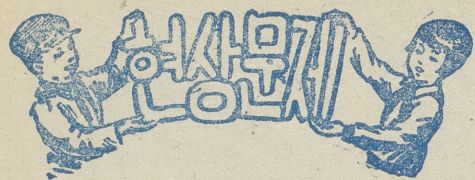
이 영화는 4학년생인 두 동무 위쨔 말례예브와 꼬쓰쨔 쉬슈낀이 학습을 게을리하는 심한 작난'군으로부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삐오네르 분단에서 어떻게 교양 받아 나가는가를 보여 줍니다.

위쨔는 《대체 산수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하고 말하면서 산수를 아주 싫어하며 늘 2점을 맞습니다.

꼬쓰쨔는 로어 학습을 잘못하여 필기나 작문이 있는 날에는 꾀병을 앓으면서 결석하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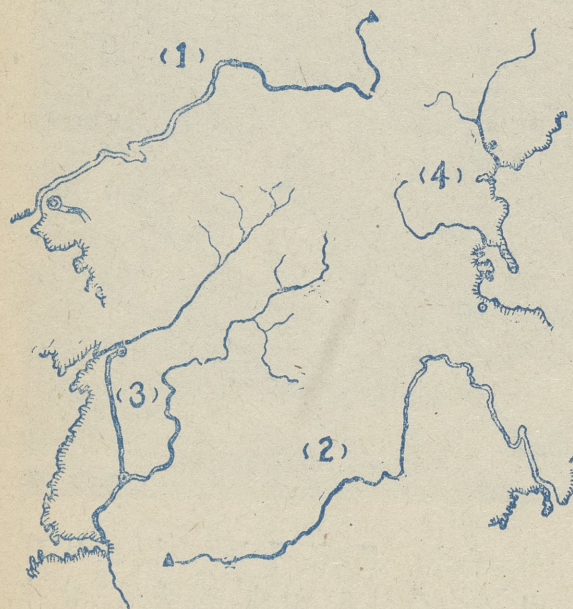
이들은 뽈차기와 다른 작난으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숙제는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베끼며 귀틈질해 주기만 바랍니다. 분단에서는 이것을 벽보에 냅니다. 이 벽보를 본 위쨔와 꼬쓰쨔는 가슴이 찔리여 아파합니다. 그러나 인차 동무들의 충고를 잊어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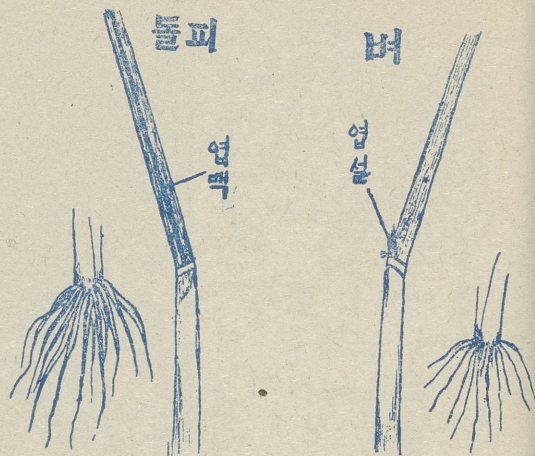
그후 어느날 위쨔는 자기의 누이 동생 리까한테 산수 문제 풀이의 질문을 받습니다. 상급생으로서 못풀겠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애써 풀어 봅니다. 그리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낸 끝에 리까에게 문제를 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과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열심히 공부하라는 충고를 받아 오던 위쨔는 이때부터 산수도 재미있는 과목으로 알게 되였으며 자기 힘으로 산수를 풀어 나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수에 4점을 맞게 됩니다.

위쨔와 함께 개 (로브지크)를 질 들이는데만 애쓰며 곡예사가 되려고 꿈꾸던 꼬쓰쨔도 직접 교장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또 위쨔의 도움을 받아 로씨야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삐오네르들은 꼬쓰쨔를 도와 주는 위쨔와 그의 도움을 받는 꼬쓰쨔가 다시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꾸준히 돌보아 줍니다. 이리하여 꼬쓰쨔도 로씨야어에서 4점을 맞게 됩니다.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게된 위쨔와 꼬쓰쨔는 말 흉내 내기와 산수 문제 푸는 개(로브지크)를 가지고 연예 써클에 참가합니다. 이리하여 분단에 학습을 게을리하는 동무들이 없어진 것을 모두 기뻐하면서 즐겁게 노래부르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조국의 지도 우에서

동무들은 우리 나라의 지도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 나라의 **강**들과 도시들입니다.

알아 맞춰 보십시요 (답은 번호에 따라 쓸것).

제6호 현상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1).

돌피는 엽맥이 뚜렷이 흰줄로 보이고, 엽설(혀같이 생긴 것)이 없고, 뿌리가 굵다.

벼는 엽맥이 뚜렷치 않고, 엽설이 있고, 뿌리가 가늘다.

(2)달깨비, 능쟁이, 바랭이, 엉겅퀴, 냉이풀, 광지풀, 가라지, 쇠뜨기, 쑥풀, 가마동풀, 돌피, 사라귀풀, 메싹, 조뱅이풀, 밀풀, 참비듬, 송구지, 방동산이, 등

당선자

자강도 자성군 자성 인민 학교	고 미혜
평남도 은산군 서남 인민 학교	류 련수
강원도 고산군 연호 인민 학교	배 기영
평양시 제7 인민 학교	김 명숙
황북도 린산군 동사 인민 학교	김 영식
황남도 벽성군 제7중 인민반	박 금동
함남도 제 5초등학원 (인민반)	주 은천

편집 위원——김 주 현 (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길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은

1955년 8월 15일 인쇄
1955년 8월 20일 발행
발행소 민주 청년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5년 제8호 (총71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135 값 25원 총배포처——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붉은별

김경태 요
라화철 곡

하늘에 반짝반짝 별은많아 도 모란봉 해방탑 의
붉은저별 을 우리는 언제나 노래한다 네
훌륭한 군대 아저씨 들 빛 내인 저기저
별 붉은별 우-러러
배워- 나가 며 동무들아 저-별을
동무들아 저-별을 길-이 길-이 빛 내이- 자
빛 내이- 자

(2) 밤 하늘 빛나는 별은 꺼져도
전설의 우렁찬 노래와 함께
해방탑 붉은 별 더욱 빛나네

아동 샤와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평양시동구역제 1 유치원에서)